소프트웨어 공학 과제 1 – Problem statement

Online E-book maker

구태성, 김호성

소프트웨어 공학 1분반

**Problem Statement**

기존에 일반인들이 책을 내는 과정은 정말 어려웠습니다. 작가가 되기 위해서 온갖 공모전를 우승하는 좁은 관문을 통과해 유명해지거나 직접 큰 액수의 출판비를 지불해서 책을 내야 했습니다. 이런 기존의 복잡하고 무거운 과정을 어떻게 디지털 기술로 해결 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모든 사람들이 부담 없이 작가가 될 수 있는 환경을 원합니다. 유저가 직접 무료로 E-book를 작업하고 언제 어디서든지 온라인으로 책을 작업할 수 있으며 중간에 작업을 중단하고 이어할 수 있는 환경이 필요합니다. 그 외의 책 표지 추가하기 등 다양한 기능 등을 통해 유저가 처음부터 끝까지 책을 완성 할 수 있는 경험을 주어야 합니다. 사용자는 단순히 책을 쓰는 것뿐만 아니라 관리자에게 승인을 받아 앱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공유하고 다른 사람들의 책을 읽어볼 수도 있어야 합니다. 이렇듯 많은 사람들이 작가가 되어 책을 쓰고 공유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드는 것이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시나리오**

사용자는 Admin 겸, Author이다. 사용자가 E-book Maker 프로그램을 키자, ID와 PW를 입력하는 로그인 창이 뜬다. 사용자는 우선, Author 계정으로 로그인 한다. 그러자, 책장과 비슷한 느낌의 UI(책장 화면)가 나온다. 선반에 의해 두 개로 나뉘어진 공간의 위로는 내가 작업 중이던 책 목록이, 아래로는 내가 받아놓은 다른 Author들이 작성한 책 목록이 뜬다. 사용자가 동시에 작성할 수 있는 책 목록은 최대 3개, 현재 사용자가 작성 중인 책 목록은 2개이므로, 사용자는 그 옆에 있는 + 버튼을 눌러 작성 중인 책을 하나 더 추가한다.

사용자가 작성 중인 책 목록을 좌 클릭 하자, 책과 같은 느낌의 UI(책 화면)가 나온다. 동시에, 사용자가 마지막으로 작업한 페이지를 보여준다. 사용자는 이런저런 문장을 쓰고, 나가기 버튼을 눌러서 작성을 마친다. 책 작성을 마친 사용자는 방금 마친 책을 우 클릭 한다. 그러자 ‘보기’, ‘삭제’, ‘수정’, ‘요청’의 버튼들이 나열된다. 사용자는 책 작성을 마쳤으므로 ‘요청’ 버튼을 누른다. 그러자 “책 등록이 요청되었습니다”라는 알림과 함께 책에는 ‘요청 중’이라는 단어가 뜬다.

사용자는 계정을 로그아웃 한 후, 이번에는 Admin 계정으로 로그인 한다. 그러자, 상단 화면에는 작업 중인 책 목록이 뜨던 Author 계정과 다르게, Admin 계정에는 요청 승인을 기다리는 중인 책 목록이 뜬다. 그곳에는 사용자가 방금 요청 승인을 보냈던 책과 함께 다양한 Author들로부터 보내진 책들이 나열되어 있다. 사용자는 그 책들을 좌 클릭 해서 책 화면으로 넘어가 잠시 읽어본 후, 다시 책장 화면에서 우 클릭을 해서 승인 버튼을 누르거나, 거절 버튼을 눌러 목록을 지워 나간다.

모든 책들을 검토한 후, 사용자는 책장 화면 아래 화면에 있는, 받아 두었던 책들을 살펴본다. 읽을 만한 게 없다고 생각한 사용자는 책 목록의 옆에 있는 + 버튼을 눌러서 다른 사람들이 올린 책 목록을 확인한다. 그곳에는 사용자가 Admin으로서 방금 승인한 책을 포함하여 승인된 다양한 책들이 올라와 있다. 사용자는 그 중 하나를 좌 클릭 하여 책장 화면으로 가져온다.

